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0. 5. 11. / (총 5매)	담당부서	아동복지정책과
과 장	성 창 현	전 화	044-202-3410
담 당 자	임 태 근 / 임 현 규		044-202-3415 / 3823

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

-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이 큰 동네마트, 음식점 등이 돌봄포인트 소비의 72%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지난 4월 13일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약 보름 동안(4.13.~4.30.) 실제 사용처가 대부분 동네마트, 일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*을 받은 183만 명의 보호자(아동 수 기준 약 236만 명)가 4월 30일까지 소비한 업종을 8개 카드사**로부터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이다.

* (대상) '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지급 가구, (지원) 아동 1인당 40만 원, (예산) 1.05조 원

** 농협, 롯데, 비씨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, 비씨카드는 13개 참여 은행사를 포함

□ (사용 현황) 4월 13일 지급한 돌봄포인트 9,445억 원의 43.5%인 약 4,100억 원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한 것으로 파악된다.

○ 이는 일주일에 지급 포인트의 약 20%를 사용하는 것이다.

□ (주요 소비처) 쿠폰 소비처는 ①동네마트(1,559억 원, 37.9%), ②일반음식점(697억 원, 16.9%), ③의류·잡화(356억 원, 8.7%), ④병원·약국(351억 원, 8.5%) 등 4개 분야가 전체 소비의 72%(2,963억 원)로 나타났다.

○ 이 외에도 지역에 있는 주유소, 커피숍, 이·미용, 여가 및 레저, 베이커리, 학원 등이 주요 사용처로 분석되어,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

< 소비 업종 상위 10개 현황 > (단위: 억 원, %)

순위	업종	소비액	비중	순위	업종	소비액	비중
	계	4,113	100.0				
1	동네마트(편의점 등)	1,559	37.9	6	커피전문점	115	2.8
2	일반음식점	697	16.9	7	뷰티(이·미용)·헬스	111	2.7
3	의류·잡화	356	8.7	8	여가·레저	103	2.5
4	병원·약국	351	8.5	9	베이커리	102	2.5
5	주유	124	3.0	10	학원	93	2.3

○ 시도별로 보면 제주(54.0%), 세종(53.3%), 강원(52.0%)는 배정액 대비 50%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울(37.1%), 부산(37.9%), 경기(41.8%) 등에서도 대부분 약 40% 수준에서 소비하고 있다.

< 시·도별 소비성향 분석 > (단위: 억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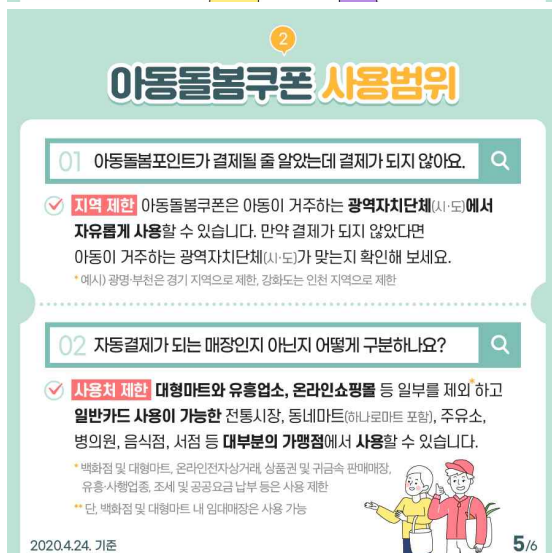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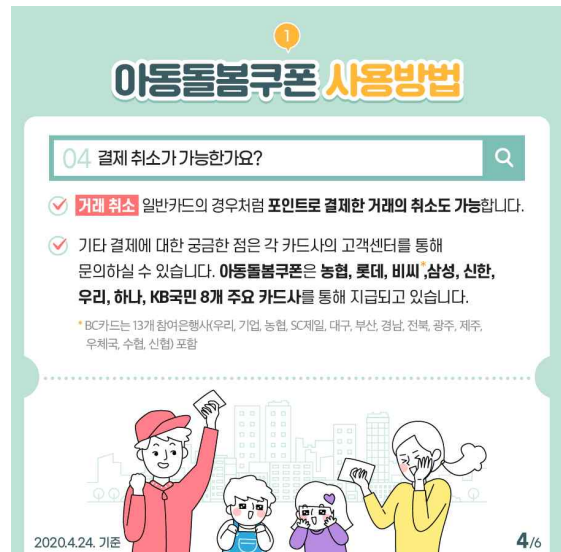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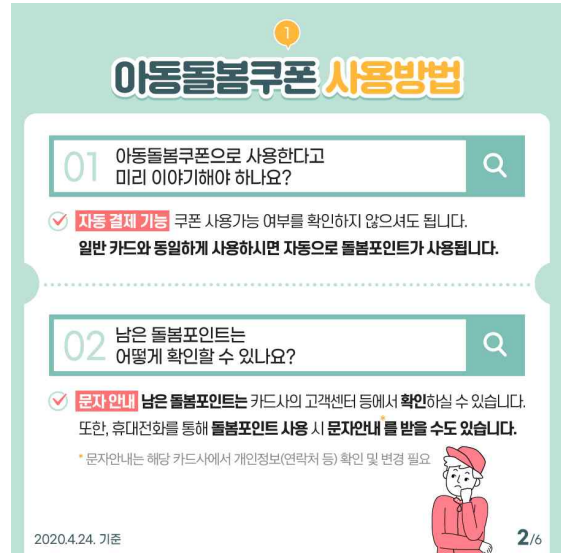
시도		배정 (A)	소비 (B)	B/A	시도		배정 (A)	소비 (B)	B/A	시도		배정 (A)	소비 (B)	B/A
계		9,445	4,113	43.5	6	대전	293	142	48.5	12	충남	330	158	47.9
1	서울	1,568	581	37.1	7	울산	254	116	45.7	13	전북	301	148	49.2
2	부산	580	220	37.9	8	세종	120	64	53.3	14	전남	289	150	51.9
3	대구	451	190	42.1	9	경기	2,641	1104	41.8	15	경북	410	191	46.6
4	인천	579	252	43.5	10	강원	204	106	52.0	16	경남	662	307	46.4
5	광주	300	147	49.0	11	충북	313	156	49.8	17	제주	150	81	54.0

-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은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사업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은 동네마트, 일반음식점, 의류소매업, 병원, 이·미용, 여가 및 레저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.
 - * (소상공인연합회) 소상공인 97.9%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 (2월 말)
 - * (중소기업중앙회) 전체기업의 76.2%가 매출 감소 및 자금 압박 경험, 주요 피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, 섬유제품업, 개인서비스업, 여가서비스업 등 (비제조업 647개를 포함한 1,234개 업체 설문조사, 4.10~23일)
-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.
 - * (3월 고용동향, 전년 동월 대비) ▲도매 및 소매업(-4.6%, -16.8만 명), ▲숙박 및 음식점업(-4.9%, -10.9만 명) 등
- 이러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, 아동돌봄쿠폰의 빠른 소비는 동네마트 등 주요 소매업, 음식점업, 의류소매업, 여가서비스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고용 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- 또한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신청 없이도 지급, 넓은 사용 범위, 문자 서비스, 가맹점 확인 불필요 등 편의성 측면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었다.
-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“이번 아동돌봄쿠폰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,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정책 취지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.”라고 설명했다.

< 참고 > 1. 아동돌봄쿠폰(돌봄포인트) 사용방법 안내 홍보자료
2. 아동돌봄쿠폰(돌봄포인트) 사용 제한 업종

참고1

아동돌봄쿠폰(돌봄포인트) 사용방법 안내 홍보자료



참고2

아동돌봄쿠폰(돌봄포인트) 사용 제한 업종

연 번	업종	브랜드
1	대형마트 (기업형수퍼마켓)	홈플러스(익스프레스), 롯데마트(롯데수퍼), 이마트(트레이더스, 에브리데이)
2	백화점	신세계백화점, 롯데백화점, 현대백화점, AK, 뉴코아(NC백화점) 등 백화점 업종
3	온라인전자 상거래(PG업종)	온라인쇼핑몰, 배달앱 등 온라인(앱) 거래 업체
4	대형전자판매점	하이마트, 전자랜드, 삼성디지털프라자, LG전자베스트샵
5	클린카드 적용업종(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)	
	유흥업종	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 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	위생업종	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
	레저업종	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비디오방 등
	사행업종	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	기타	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6	어린이집, 유치원	기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·유치원
7	상품권 업종	상품권 판매점
8	귀금속 업종	귀금속 판매점
9	조세, 공공요금 업종	국세, 지방세, 공공요금
10	면세점 업종	면세점
11	보험업(4대보험)	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
12	무승인매출/ 배치승인(통신료)	교통·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

*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(브랜드)는 해당 카드사 누리집 및 콜센터 문의
(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